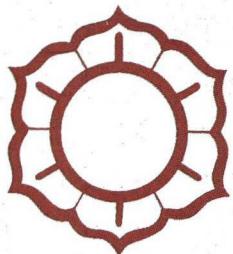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1년
10월 1일
월요일
제27호

이 달의 종조법설

작은 것을 승상하면 사상이 작은 인물이 되고 또 작은
인물을 놓게 되며, 큰 것을 승상하면 사상이 커져서 큰
인물이 되고 또 큰 인물을 놓게 된다. 그러므로 작은 유
상보다 큰 무상을, 유한한 현실보다 무한한 진리를,
한 인간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을 믿고
크게 살아야 할 것이다.

발행인 : 혜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하경복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제21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제2의 창종을 위한 용맹정진을



제21주기 종조멸도절 추선 불사가 지난 9월 8일 오후 2시30분 총지사 3층 회관에서 롤정 종령과 혜암 통리원장, 서울 경인교구 스승 그리고 신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선불사가 거행되었다.

지성 재무부장의 사회로 영전제막과

점화를 시작으로 개식사, 현화 및 훈향 정공, 추선사, 참회가·오대서원가, 무상 계독송·천수경독송, 유가삼밀, 종조님 육성법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령은 추선사에서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휘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면일

들을 생각하오니 추모의 정을 금할 길 없다" 하시면서 이어진 종조님의 육성법문은 바쳐 현실에 경감하셔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고 힘있는 교화의 법문을 들려 주심과 같이 주위의 모든 이들을 감화시켰다.

한편 혜암 통리원장은 "원정님께서 이 종단을 창종하시어 몸소 이끌어오신 세

월보다 열반 후의 세월이 더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 보다 오히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정 대성사님께서 교설하신 바와 같이 시대에 따라 교회방 편이 달리야 한다는 재생의세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종조님에 대한 진정한 추선불사요, 유훈에 따르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제2의 창종을 위한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혜암 통리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위촉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제10기 자문 위원으로 혜암 통리원장은 지난 9월 6일 잠실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받았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과 정책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부측 보고와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결의문 체택으로 진행됐다.

마산 운천사 청신화 지수 열반



1976년 마산 광혜서원당 시절부터 진 언행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며 신도들과 함께 해온 청신화 지수께서 총기 30년 9월 4일 새벽 2시경 세연을 다하시고 세수 62세로 열반에 드셨다.

청신화 지수께서는 평생을 중생교화와 전법의 일선에서 진언열송의 공덕을 널리 펴셨던 분으로서 창종 초기 마산 광혜서원당(현 운천사) 주교의 소임을 맡으신 이래 원의회 의원, 제6대, 제7대

중앙종의회 의원을 지내셨다.

청신화 지수의 열반을 맞아 통리원은 종헌의 규정에 따라 장례위원회(위원장 정정심, 집행위원장 원송, 고문 원봉, 의강)을 구성하고, 장례는 교구장으로 치러졌다. 9월 10일 오전 10시 빈소가 마련된 운천사에서 유가족 및 전국 스승, 교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인하였다. 49제는 오는 10월 22일 운천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혈벗은 이에게 옷을 주어 구난보시(救難布施)하였는가, 과객 불러 먹여 재워 행인보시(行人布施)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보시(越川布施)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활인보시(活人布施)하였는가, 높은 산에 불당 지어 중생보시(衆生布施)하였는가, 목마른 이 찬물주어 시수보시(施水布施)하였는가.」 예전에 경기도 지방에서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향두기의 한 대목으로 살아생전 망자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가 하고 묻는 구절이다. 불경을 한문으로 읊길 때 범어「나나」를 포시(布施)로 익혔는데 포시라 읽지 않고 보시라 읽는 것은 널리 베풀다는 뜻의 보시(普施) 혹은 은혜에 보답하여 베풀다는 뜻의 보시(報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예는 문헌 혹은 생활양식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송나라 사신이 고려를 다녀간 후 쓴 견문기 「고려도경」에 보면 여름에 고려의 수도 서경의 거리에는 집집마다 시원한 물 단지를 땅에 묻어 두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원한 물을 베푸는 시수보시(施水布施)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남대문과 동대문 앞에는 팔도에서 올라온 많은 노숙자가 항상 노숙하고 있었다. 그들을 위해 조석으로 빈대떡 한 수레를 싣고 와서는 「청계천변 안동 권씨 빙자 보시오!」「회동 정씨 정자나무집의 빙자 보시오!」하며 노숙자들에게 빈대떡을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요기를 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자비의 실천덕목으로서 보시의 전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속에 같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조의 혹심한 배불(排佛)정책과 현대인의 이기주의로 보시의 전통은 생활 속에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자신들의 손익만 따지는 오늘의 우리들, 맷가 없이 주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현대인들, 보시라는 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과감하게 타파하시며 보시를 자비의 최고 실천덕목으로 삼았던 불교를 생활화하여 보시를 경전이나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옛 선인들처럼 생활의 한 부분으로 행하고자 가르치며 보시정신을 생활 속으로 끌어내신 종조 원정 대종사님의 멸도절이 몇 일 전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불자로서 자비실천의 최고 덕목이라고 하는 보시를 어느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천은 아직 못하고 있어도 보시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개념이라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것은 어떠할까, 이 좋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에..



불교 총지종

제58회 추계강공

종조 원정종사님이 흥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교화와 포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계강공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단산하 전 스승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0년 10월 16일(화)~19일(금)
- 장소 : 불교총지종 총지사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 주관 : 불교총지종 통리원

제58회 강공 주요 일정표

- 16일(화) :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원의회 및 재단이사회
- 17일(수) : 교양교육, 종단현황, 종의회
- 18일(목) : 열반스승 추선불사, 승단총회, 관불수련
- 19일(금) : 견학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혜암

사설

한글대장경 완간의 의미... 경전을 읽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자랑하는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이 750년 만에 318권 한글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려대장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다보니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입을 통해야만 경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완간은 팔만대장경을 누구나 알기 쉽게 오늘에 되살린 것으로, 한국불교사와 우리 민족 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성과와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략을 불심으로 극복하기 위해 16년(1236~1251)에 걸쳐 조성된 불교문화의 정수이다. 이런 고려대장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은 한글 창제 이후의 큰 과제였다.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을 두고 국역 작업을 벌였고, 일제시대에도 용성 스님의 대각회에서 번역작업을 했지만 모두 일부에 그쳤다. 그러다가 불교계의 일제 청산을 위한 불교정화 뒤 불교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운허(耘虛) 스님의 원력을 중심으로 자운, 석주 스님 등이 뜻을 모아 법보원을 만들어 다시 번역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몇몇 뜻있는 스님들에 의해 시작된 작은 불사는 팔만대장경에 버금가는 대작 불사로 이어져 37년 만에 완간을 이루었다.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 등 외향적인 성취에 몰두해온 가운데, 우리와 세계의 귀중한 정신문화 유산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장기간에 걸쳐 완간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한글대장경'은 일단 완간 되었지만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고려대장경도 얼마 전 모두 전산화되어 CD로 시중에 나왔다. 그리고 한글대장경도 지금 동국대학 불전연구소와 동국역경원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밥상이라 하더라도 찾아 먹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다. 한글대장경 완간을 자축하고, 역사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를 되새겨 화합과 통일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창한 의미도 경전을 찾아 읽지 않으면 그 의미는 거창한 치장을 불과하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한글경전을 너무 등한시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전의 분량이 방대하고 소설처럼 쉽게 읽히지는 책이 아니니 그럴 법도 하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국민 5명 중 3명만이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다. 1인당 평균 독서량은 13.2권으로 4년 전보다 3권이 줄어 들었다. 여가시간은 TV보기나 낮잠,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데 활용하고 독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이제 제법 쌀쌀하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하였다. 거창한 의미들을 찾지 않더라도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고 엉덩이가 짓물려도 멈추지 않았던 두 시제의 일념으로 완성된 경전.

이 가을, 그 한 권의 경전을 읽어봄이 어떨까.

고 청진화 지수 행장



사) 주교

- ▲ 1987년 10월 청정지 전수 품수
- ▲ 1989년 7월 중앙종의회 의원
- ▲ 1991년 10월 원의회 의원
- ▲ 1992년 10월 밀인지 대전수 품수
- ▲ 1993년 6월 제6대 중앙종의회 의원
- ▲ 1997년 6월 제7대 중앙종의회 의원
- ▲ 1997년 10월 출세간위 지수 품수
- ▲ 2000년 12월 운천사 근무

▲ 1940년 8월 12일 경남 밀양 생

▲ 1976년 11월 광서원당(현 운천

동해중학교 개교 34주년 기념식

은혜를 아는 사람, 21세기 주역으로 우뚝서길



불교 종지종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가 개교 34주년을 맞았다.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가진 기념식은 개식

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균속교사 표창 및 학생사상, 학교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통리원장 축사와 식후 행사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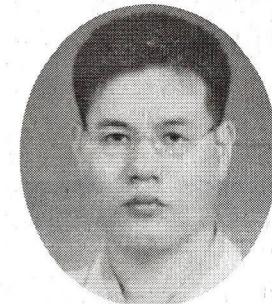
근속교사 표창에서 장재계 교사와 강태영 교사가 20년 균속, 김효선씨가 10년 균속상을 시상했다.

수성 이사장은 치사에서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전통을 잘 받아들이 이어가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나가자"는 당부와 함께 "여러분의 학습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암 통리원장은 "참되고 씩씩하게 자리서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역군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모교의 은혜, 나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식후행사로 동해중학교 풍물페스티벌과 학부모대표, 동창회 대표 등 내빈들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다과회를 가졌다.

국제포교사 문화체험을 다녀와서



김용주 교무

당을 두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해외포교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각종은 현지인을 교육하여 현지인이 한국에서 어학연수, 스품교과장을 이수한 후 종단적 지원 하에 중국, 미국 등 5곳에 해외 심인당을 설치하고 있어 각 종단들이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해외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셋째 날은 6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티벳문화의 전시회가 열린 통도사 박물관에서 5명의 티벳 승려들이 행사를 그리기 위해 1시간 동안 불경을 득송한 후 잘게 부셔진 옥석으로 행화를 그리는 모습 속에서 한편의 행화를 탄생하기 위해 밀교의 진언과 열승의 공덕과 법력의 위대한 신력을 모체로 하고 있

종단의 연 주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첫째날은 조계사에서 입장식을 마친 후 2대의 관광버스로 선열들의 흔과 예술의 정신이 깃든 흥성의 도예지 마을을 방문하여 도자기 제조과정과 도자기 제작체험을 하고, 원주 종가집 김치공장을 방문하여 김치제조 과정과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한 후 수몰지역인 청풍 프라자에서 여장을 풀었다.

둘째 날은 유교선비들의 굳은 절개와 지조가 서려있는 유교서원의 본거지인 안동의 소수서원을 방문하여 조선시대 유생들의 풍습과 승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배치된 가림을 보며 승승과 제자사이의 예절의 엄격함을 실감하였다.

이어서 하회마을을 방문하여 서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익살스럽게 풍자한 탈춤공연을 관람한 후 통도사 주변숙소에서 여장을 풀 후 국제포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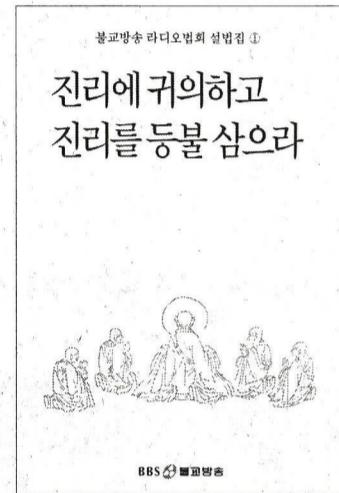
여기 놀라운 사실은 외국에서는 원불교가 한국불교 종단에서 제일 큰 종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계종은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해외포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현지의 사찰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는 실정이지만 원불교는 유럽, 미주지역에서 교회건물을 인수할 정도로 교세를 확장하여 100여 곳에 교

〈김용주 교무〉

스님 51명의 설법 모음집 발간

'진리에 귀의하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고불총립 백양사 운문선원 방장 서옹스님의 '참 부처의 자리'에 대한 법문으로 시작하여 교계 각 종단의 대덕 스님들의 설법으로 이어진다.

해암 통리원장은 '진언불교의 요체'의 법문에서 종조 원정(圓淨) 대

성사의 창종의 의미와 유가삼밀관행법으로 진언행자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합일되는 일심(一心)에서 어떤 마장도 모두 다 소멸되며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음을 설법 한다.

이 책은 불교방송이 지난 90년 5월 개국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매주 일요일 프로그램인 '라디오 법회' 시간에 출연한 스님들 가운데 51명의 법문을 6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총지사 신도회의 따뜻한 손길이 어져

백혈병 불자 보살돕기 성금 전달

우리들 곁에는 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가난과 투병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관세음보살의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주는 이들이 있다.

지난 8월 월초불공 회향을 마치고 총지사 신도회는 신도들의 온정

이 모인 성금 26만원을 생명나눔 실천회에 전달했다.

총지사 법등 주교는 "우리들이 늘 독송하는 헌선회향 중 하나를 실천한 것일 뿐"이고 "소리없이 실천하는 총지사 신도회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자신의 역할을 애써 김주었다.

제73회 임시중앙종의회 열려

8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나눠

특히 ▲사원 건축 및 부지 건물 매입 건 ▲본사 건립 추진 및 현황과 재정문제 ▲만다라 조성 현황문제 ▲법의 제작 및 창작시기 ▲종보 발간 현황문제 ▲후임 승직자 양성 및 교무 기사 승직으로 전환문제 ▲예산지출 절차 결재권 ▲법장원 운영현황 등을 안건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본산건

립에 대한 문제와 법의 제작 및 창작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사업의 진행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의강 종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현 집행부를 도와 종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깨달음의 꽃 1, 2

하춘생지음/신국판/1권 296쪽, 2권 272쪽/각권 정가 8,000원

이 책은 19세기 말에 20세기를 살다간 비구니 큰스님들을 다시 뵙고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작업은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해주스님(동국대 교수)

부처님의 말씀 한 마디를 세상의 미망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항하의 모래알들보다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용맹정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깨달음의 보배를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죄일 수 있다.

하춘생 씨가 이번에 내놓은 책 속에 들어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모두 그러한 꽃피우기를 하다가 영원의 시간 속으로 잠적한 고위한 꽃들이다.

-한승원(소설가)

일체증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남녀차별이 적잖은 게 불교계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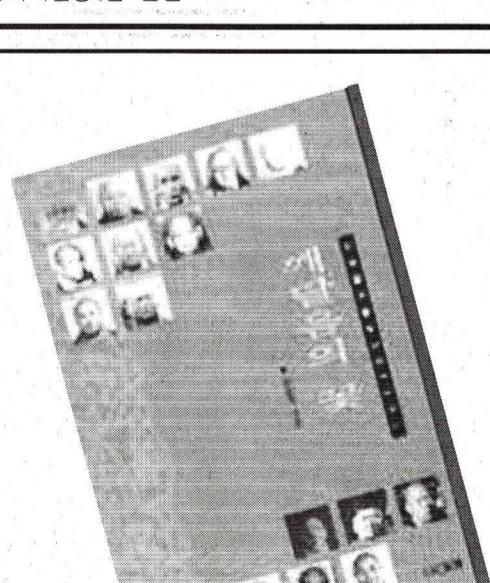
비구니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젊은 비구에게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춰야 하는 등 비구니 팔경계(八警戒)를 내세운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힘든 상황에서도 정진, 또 정진해

[깨달음의 꽃]을 피운 비구니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서화동(한국경제신문 기자)



한국 불교를 빛낸 근세 비구니들의 인생과 사상을 조명한 책. 묵묵히 수행에 전념한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통해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정신 및 그 원력을 통한 중생제도의 대비심을 그렸다. 도를 이루지 못하면 짐승의 몸을 받는다는 혜준 스님, 수행하기 싫으면 속히 환속하라는 장일 스님 및 중생의 병드니 자신이 아프다는 만선 스님 등 15명 스님들의 발자취를 수록했다.

이기선 그림 속의 불교 이야기

향로

향로향을 사르는 일은 바로 마음속의 번뇌나 티끌을 불살라 정화하는 것을 상징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기 앞서 향을 사르는 일은 기본 예절.

향로(香爐)는 향을 사르는 데 쓰는 법구이다. 불보살에 올리는 공양은 원래 향·꽃·등불을 으뜸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삼종의 공양물을 담아 올리는 공양구인 향로·화병·촛대를 불단(佛壇) 삼구족(三具足)이라 하고 향로와 한 쌍의 화병과 촛대를 일러 오구족(五具足)이라 한다. 뒷날에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은 이 삼종이다.

다(茶)·과(菓)·미(米) 셋이 더하 여져 모두 여섯 가지 공양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으뜸 가는 공양물은 향이었다.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향은 원래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향을 지니면 남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므로 옛 사람들은 향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향나무를 우린 물에 목욕을 하였다. 오늘 날에는 향수를 바르거나 뿌리는 일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더운 인도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체취나 방안의 악취를 없애기 위하여 일찍부터 향을 사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더럽고 나쁜 냄새를 없애 준다는 향이 지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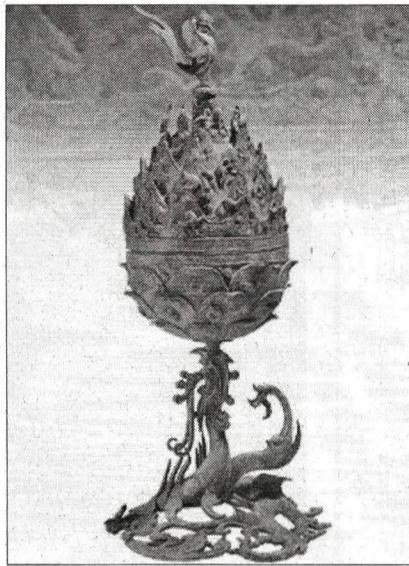
의미가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의미로까지 확대되어 미침나 향을 사르는 일은 바로 마음속의 번뇌나 티끌을 불살라 정화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고, 또한 꽃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기쁨과 평화를 베푸는 뜻도 담겨 있다.

따라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기 앞서 향을 사르는 일은 기본 예절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향을 사르는 일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따라서 향공양의 그릇인 향로를 만드는데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향에 얹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제 19대 놀지왕 때 승려 육호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에 오자 그 고을 사람 모례(毛禮)가 집안에 굴을 파서 방을 만들어 편안하게 하였다. 이때 양 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의복과 향을 보내왔는데 군신들은 그 향의 이름과 쓰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에 사람을 시켜 향을 가지고 두루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물어



향공양은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 중 으뜸이며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는 의미

말이 등근 작은 항아리 모양의 노신에 세 발(足)이 달린 삼족향로(三足香爐) 형식, 방형의 노신에 네 다리가 달린 형식이 있다.

또한 향로에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중국 한 나라 때 성행한 박산로(博山爐)처럼 뚜껑의 생김새에 따라 향로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나팔처럼 생긴 높은 받침대 위에 넓은 전이 바깥쪽으로 뺨은 특이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어 향완(香)이라고 부르는 형식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금속의 표면 장식 기법으로 은입사가 널리 유행하였는데, 이 은입사로 향완의 표면을 화려한 무늬로 장식하여 더욱 품격을 높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인 향로를 꼽아 보면, 최근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를 비롯하여 경주 노서동 금관총 출토 청동병향로, 밀양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 등이다.



※ 풍성한 불 꺼리와 상품이 제공 될 어르신 장기자랑을 진행합니다. 5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 어르신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사회자 2분을 공모합니다. 더욱 알차고 재미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됩니다.
※ 기념 바자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생활이 어려우신 제가어르신들을 돋기 위한 후원금도 받습니다.

불교 에세이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서로 싸우는 인간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폭력과 전쟁은 역사 아래 계속 되어왔고, 인간들은 도처에서 속이고 해치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과연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고 상대방을 해치고 죽이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워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었다.

그 때에 존자 마하 카차나는 바라나 마을의 한

숲에 머물고 있었다.

그 때에 바리문이 찾아와 카차나에게 물었다.

"나리를 지배하는 왕과 왕들이 서로 싸우고,

바리문과 거사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하 카차나는 대답하였다.

"탐욕에 얹매이고 집착하

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렇다면 출가자들은 왜 서로 싸우지요?"

"자기 생계(生存)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바리문은 다시 물었다.

"탐욕이나 견욕에 얹매이거나

집착을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존자 마하 카차나는 대답하였다.

"우리 승인인 여래·응공·정변지·명행족·선서·

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세존께서는 탐

욕과 견욕의 매임과 집착을 능히 떠나셨습니다"

"불세존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불세존께서는 지금 코살라국 사워성 기수급고독원

에 계신다."

그 때에 범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불이고, 부처님 계

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찬탄하였다.

불세존·여래·응공·등정각제 귀의하나이다.

왜들 싸우는가?

에 접어들어 세계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이나 구 소련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종교·문화·경제 등 침략을 자행했는데 이 밀비방에는 집단의 엄청난 욕망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념간의 대립에서 지역감정, 편파로기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 갈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암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연기의 법칙에 의해 상호 의지하고 관계성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존귀한 존재이며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본능, 편견, 어리석음, 아집 등을 벗어나 친란한 진리의 세계에서 살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믿음이 더욱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봉 이학송)

역삼 재가 노인복지센터 소식

◆ 강남구 사회복지기관 직원연수

지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강남구내 13개의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둔내 성우리조트에서 사회복지기관 직원연수를 실시하였다.

본 센터에서도 7명의 직원이 참석하여 직원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수혜자의 입장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민 서비스 종사자로서 조직 내·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강남구 소재 복지관 소개와 각 기관의 사례관리의 내용을 수록한 "강남구 사회복지기 관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각 복지기관의 연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 강남구 사회복지기관 우수직원 표창

지난 9월 10일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제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우수직원 표창에 본 센터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박경란 보살이 선정되어 강남구청장



으로부터 시상을 받았다. 박경란 보살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 수상을 하게되어 속스럽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어르신들의 영양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삼일사 교도자녀 국무총리상 수상

제8회 부산국악전국대전서 종합대상

지난 9월 8일, 9일 양일에 걸쳐 열린 제8회 부산 국악전국대전에서 삼일사 총무보살의 자녀 이수연양이 종합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수연양은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할 때에도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또한 지난 98년에는 고산수련원에서 개최된 경로수련법회에서도 공연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다.

경로의 달 맞이 경로잔치 한마당

▶ 강남구 주간보호센터 연합 나들이◀

신체적·정신적 불편으로 활동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강남구 소재 주간보호 센터의 연계 협조를 위하여 본 센터와 강남구에 소재한 목련치매주간보호센타, 은빛등대주간보호센타와 더불어 강남구 주간보호센터 연합나들이를 실시합니다.

• 일 시 : 2001년 10월 12일(금)

• 장 소 : 가평 산정국민관광유원지

• 대상자 : 강남구 노인주간 보호센타 이용자
자원봉사자, 이용자가족

▶ 2001년 10월 경로의 달 맞이 경로잔치 한마당◀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무의탁어르신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내의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어르신과 지역사회주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인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1년 10월 24일, 10:00~16:00
- 장 소 : 총지사
- 주 최 :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 내 용 :
 - 어르신 장기자랑 경연대회 및 사물놀이 공연
 - 기념바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0-3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전화 : 564-9294 팩스 : 558-8772 e-mail : http://ysswc.hihome.com

이 기사는 지난 9월 25일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종교사회복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종교사회복지포럼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권 경 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종교사회복지의 역할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에 있어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

-새로운 종교사회복지 모델의 모색-

유승무(중앙승기대학교수)

시민사회운동과 종교사회복지의 관계 설정의 문제와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복지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교사회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사회운동과 종교사회복지의 결합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보고 그 한계를 밝혀 냈으로써 단순한 양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란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며 한국사회의 경험을 근거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운동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은 70, 8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시민사회운동의 세력이 형성되어 동원방식, 조직원리 등이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과 관련이 되어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사회운동과 결부되어 생활세계, 공공영역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집합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은 종교의 사회적 정당성이나 포교 및 선교전략과 맞물려 있는 종교사회복지에 의존하였다. 특히 사회복지활동의 목표와 시민사회운동의 목표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민사회의 가장 큰 영역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각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 종교가 시민

사회의 가장 큰 영역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결합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과 종교사회복지가 결합하고 있더라도 결합의 방식과 서로간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론상의 차이 등 많은 부분에서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종교사회복지의 풍부한 인적, 물적 동원능력과 풍부한 이념, 가치체계, 정서 등과 시민사회운동의 전문성 및 정치적 영향력이 결합하고 종교집단의 집단이기 주의를 배제한 내부의 민주주의 형성과 시민사회운동과 연대성을 형성한다면 새

심대설(원광대교수)

한국의 종교사회복지시설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행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수동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주종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을 자원봉사하고, 사회구호적 사회봉사와 7대 종단대표자들의 시국선언 등 사회행동으로 나름대로 시민사회운동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종교의 전시장, 세계종교 백화점이라 일컬을 정도로 자생종교, 외국종교 등 수백종의 교파가 형성되어 있

원불교는 1924년 공익부를 두어 자선 사업을 관리하고 1939년 익신총부 구내에 유치원과 타이소를 추진하고 1947년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8.15 해방과 6.25동난을 겪으면서 긴급구호사업, 고아 원설치 등 중앙총부와 전국의 교도들이 출동되어 사회봉사 및 사회사업활동을 추진하였다. 70, 80년대는 원광대 사회복지학과의 신설로 전문인들을 활용하여 종합복지관, 수용시설, 이용시설, 상담시설 등 사회복지의 종합서비스 시대를 맞게되었다.

원불교는 교도들에게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교당마다 봉공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사회사업의 획기적 전달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한국종교평화회의와 7대종단 대표자의 시국선언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있어서

카톨릭사회복지의 역할

이태수(꽃동네 현대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카톨릭 사회복지는 카톨릭 교회사회사업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교회제경내에서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카톨릭 사회복지가 카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이행된다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체계가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사업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카톨릭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가능한 교회내의 기본적인 조직체계는 주교회의 산하 사회복지위원회, 각 교구의 사회복지회, 본당의 사회복지부과, 개별 사회복지관, 시설 그리고 각 복지의 분야별 전국협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분

야별 전국 협의체는 주로 조정 및 협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고, 교구 사회복지회나 본당 사회복지분과는 조정, 협의, 지원기능과 함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까지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이며, 개별 사회복지기관, 시설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카톨릭교회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차지한 역할과 위상은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영역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협의의 사회복지제도를 내에서 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카톨릭 사회복지 시설, 기관의 실제를 교구별, 분야별, 운영주체별, 재정규모별로 살펴보자. 사회복지시설의 교구별 분포는 서울이 전체의 21%인 110개소, 대구교구 12.4%인 65개소, 광주교구 11.5%인 60개소, 부산교구 11.1%인 58개소, 제주교구 9개소, 원주교구 15개소인 2.9%, 전주교구 16개소인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분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장애인(21%), 노인(16.2%), 아동(15.1%), 청소년(12.2%), 종합복지관(6.7%)이 있다. 카톨릭 사회복지의 운영주체는 교구와 수도회가 대부분을 이루고 수도회가 44.9%인 227개소, 교구가 24%, 신자개인이 15.4%의 분포를 보이고 본당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0여 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지출액이 천만원 미만인 시설이 8.5%인 27개, 1천만원~5천만원 사이의 시설이 28.5%, 1억~5억 사이는 32.9%, 10억 이상 시설은 4.4%인 14개소이며 재원은 정부에서 28.8%, 후원금으로 26.1%, 법인으로부터 17%, 수익자부담분으로 15.3%, 수익사업 7.0%로 카톨릭 교회는 한국 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속의 밀교

금줄 문화와 밀교의 만다라작법(曼茶羅作法)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60, 70년대 까지만 해도 얘기가 태어난 집의 대문에는 반드시 새끼를 매달았다. 흔히 '금줄' '검줄' 혹은 '인줄'로 불리는 새끼줄이다. 깨끗한 벽짚으로 꽈皞 내걸었던 새끼줄은 단순한 벽짚이 아닌 생명탄생의 신호요 상징물이었다.

그런데, 왜 새끼줄을 '금줄'이라 했을까. 금줄에는 분명 구분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액운을 앤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줄의 안쪽, 즉 산모와 아기가 있는 곳은 외부인의 출

작만다라법(作曼茶羅法)에서 우리의 금줄문화와 유사한 '경계·금기·성역공간'의 경우를 보게 된다.

'금강궐(金剛臘)'이 한 예다. 금강궐은 만다라를 건립하기 전에 도량이나 토단(土壇)의 네 구석에 세우는 길다란 막대 기둥이다. 사방궐(四方廈)이라고 한다. 금강궐의 역할은 당연히 악마의 침입을 막고, 단(壇)과 도량(道場)을 견고히 하여 여하한 악마도

우리의 금줄문화가 액운을 없애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재초복(除災招福)에 있다면, 밀교의 결계문화는 궁극적인 불신(佛身)의 성취에 있다. 결국 밀교의 작법은 성불을 위한 과정 이요, 현세의 방편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금줄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기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줄에는 양압과 통제만이 있을 뿐이다. 사건현장의 '수사 중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식줄에서부터, 접근금지와 통제의 실발함만이 강조되고 있다. 금줄의 신성함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나에게 금줄은 무엇일까. 삣된 마음을 조복하고 퇴전하지 않는 용맹정진. 그것이 나의 금줄이 아닐까.

또, 밀교에서는 만다라 토단이나 도량 주위에 구마이를 바르는데, 우리의 경우 미들의 수호신인 당산이나, 당수나무에 금줄을 치고 그 주위에 붉은 흙을 뿐리는 동제(洞祭)나 당산제(堂山祭)와 흡사하다. 우리의 붉은 색은 액운과 부정, 악귀를 물리치는 효과를

지닌다.

밀교의 구마이는 땅에 달지 않은 소통으로, 단(壇)의 치지(治地)·견고(堅固), 도량의 청정을 의미하고 있다. 밀교의 구마이가 당산제의 붉은 흙에 비유된다.

우리의 금줄문화가 액운을 없애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재초복(除災招福)에 있다면, 밀교의 결계문화는 궁극적인 불신(佛身)의 성취에 있다. 결국 밀교의 작법은 성불을 위한 과정 이요, 현세의 방편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금줄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기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줄에는 양압과 통제만이 있을 뿐이다. 사건현장의 '수사 중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식줄에서부터, 접근금지와 통제의 실발함만이 강조되고 있다. 금줄의 신성함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나에게 금줄은 무엇일까. 삣된 마음을 조복하고 퇴전하지 않는 용맹정진. 그것이 나의 금줄이 아닐까.

<법장원 밀교연구소 법경>

총지동의 보감

폐암의 진단

폐암의 진단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은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어떻게 하면 손쉽게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폐암의 진단방법은 다음의 7가지 방법에 의해 서 이루어집니다.

- 1) 흉부 단순 엑스선(X-선) 사진
- 2) 전산화 단층촬영(CT촬영)
- 3) 객담 세포 검사
- 4) 기관지경 생검
- 5) 침습인 생검
- 6) 외과적 생검
- 7) 개흉술(진단을 위하여 수술 절제)

폐암의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상기 1,2,3) 방

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40

대 이상의 사람은 필히 1년에 한번씩 시행하여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 1

년에 한번씩은 흉부 단순 X-선 사진을 활용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폐암이 의심스러우면 1번

에서 7번까지 방법을 시행하여 폐암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의 흉부 X-선 소견에서 발견되는 폐암 중에서 끼져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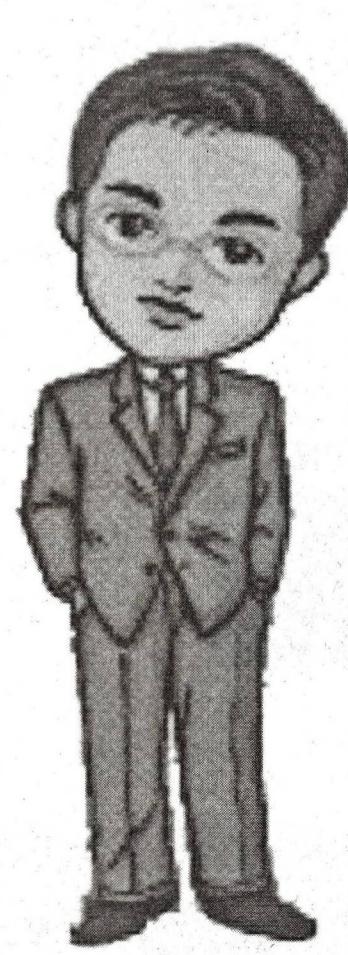
서 조기에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수술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림프 및 혈액으로 폐암이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되시면 1년에 한번씩 1,2,3)을 시행하시고, 안되시면 1)번이라도 시행하여 매년 비교함으로서 조기 진단율의 가능성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폐암을 늦게 발견되면 결국 오래 살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폐암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자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중에서 1위를 차지 할 것입니다. 폐암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담배를 4년 전부터 피우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알고 있거나 총지증을 믿고 행하시는 분들은 노력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부처님에게 서원합니다.

안 육 수

대구기독교대학 흉부외과 교수



김경현 성형외과

Dr. Kim's esthetic plastic surgery

약력 : -가톨릭대학 의학과 졸업

-강남성모병원 성형외과 스텝

-대림성모병원 성형외과 과장

수술전문 : 주름주사 및 레이저 박피

TEL 02-332-4456

FAX 02-332-4457

www.pskkh.pe.kr

진료시간 : -평일 10:00~6:30
-토요일 10:00~5:00
-휴일 예약진료

현목의 세상읽기



광기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기를

참으로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거대한 건물을 향해 돌진하는 여객기와 화염 그리고 불꽃되는 건물. 그 안팎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막은 하늘을 배경으로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는 그야말로 지옥에 다름 아니었다. 조금 전까지 만하여도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도시, 뉴욕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자금심을 가졌던 그 도시가 불과 몇십분만에 인류사 최악의 참사를 기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런 대참사를 전세계인이 동시에 지켜볼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아침 출근시간이었고 우리나라에는 저녁밥상을 물리고 난 후라는 시차로 인해 생기는 거리감 외에는 너무도 생생한 중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참사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미국 정부는 고층건물이 붕괴되기도 전에 '테러'라고 발표하였다. 어떻게 그런 단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졌는지 궁금한데 그 이후 현재까지 저 지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의 한 인물이 이번 사태의 배후 조종자라는 점만큼은 요지부동이다. 그리하여 전면적인 공습을 결정하였고 곧 대규모 폭격이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이 활자화되어 대중 앞에 다가갔을 때는 이미 아프간은 초토화되어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분노에 기가 질린 세계 각국은 앞을 다투어 미국의 보복을 지지하고 나섰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

의원은 살해 위협을 받아 경찰의 보호하에 있다. 어느 상품선전 문구에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하는 소신'은 미국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듯 하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던 그 목소리나 행동이 이번에는 발 불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광분이 이번 참사에 대한 순간적인 반작용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숨겨져 왔던 본성일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문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었던 '번'의 폭발이라고 할까.

혹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70년대 중반 바로 뉴욕 전역에 정전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발전소에 바람이 떨어져 그랬던 것 같다. 일시적인 정전이 끝나고 난 뒤의 뉴욕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룬 뒤의 모습이었다. 밝은 빛 아래에서는 세계 제일의 도시 사람으로서 젊잖은 체 했던 그네들이 정전으로 온 시기지가 칠흙같은 어둠에 잠기자 일시에 강도로 둘변 상점을 약탈하고 강간을 비롯한 온갖 강력범죄가 순식간에 도시를 훔쳤었다.

문명으로 감춰진 그네들의 암만은 그렇게 나타난다.

부하노동이라는 말이 있다. 막말로, 어지간히 힘끼나 쓴다는 놈이 나서면 그 하수인들까지 눈을 부리린다는 말이다. 미국의 광분에 덩달아 일본이 쌍수를 들고 나왔다. 오히려 더 설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일본은 미국의 보복전에 기꺼이 일본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올해들어 부쩍 국우파의 준동이 격심해진 일본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다. 미국사태 직후부터 이스라엘은 연일 팔레스타인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절대적 지지국인 미국이 공격 당했으니 기반이 있을 수 없다는 충성

의 표시일까?

확실히 세계는 지금 광기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도 그 광기는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그 광기의 배후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을 군수산업재벌들의 모습과 지금 척박한 땅일지라도 저희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저 지난한 아프간의 난민들 모습이 극명하게 교차한다.

"대왕이시여,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는 '왕'이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혜로써 관찰해 다섯가지 일을 생각해 본 뒤에 다스려야 합니다."

다섯가지란 첫째로 사실에 의지하고 사실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요. 둘째로 때에 의지하고 때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요. 셋째로 도리에 의지하고 도리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요. 넷째로 부드러운 말에 의지하고 거친 말에 의지하지 않음이요. 다섯째로 자비로운 마음에 의지하고 성냄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간자경]에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이 보복전에 앞서 잠시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그 공습에 드는 돈을 가난한 나라에 보시하길 바란다. 미국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도 당연하지만 그간 미국의 공습으로 희생된 무슬림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추모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 간절하다. 그것이 자비로 때를 생각함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지름길

의 표시일까?

확실히 세계는 지금 광기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도 그 광기는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그 광기의 배후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을 군수산업재벌들의 모습과 지금 척박한 땅일지라도 저희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저 지난한 아프간의 난민들 모습이 극명하게 교차한다.

"대왕이시여,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는 '왕'이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혜로써 관찰해 다섯가지 일을 생각해 본 뒤에 다스려야 합니다."

다섯가지란 첫째로 사실에 의지하고 사실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요. 둘째로 때에 의지하고 때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요. 셋째로 도리에 의지하고 도리 아닌 것에 의지하지 않음이요. 넷째로 부드러운 말에 의지하고 거친 말에 의지하지 않음이요. 다섯째로 자비로운 마음에 의지하고 성냄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간자경]에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이 보복전에 앞서 잠시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그 공습에 드는 돈을 가난한 나라에 보시하길 바란다.

미국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도 당연하지만 그간 미국의

공습으로 희생된 무슬림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추모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 간절하다. 그것이 자비로

때를 생각함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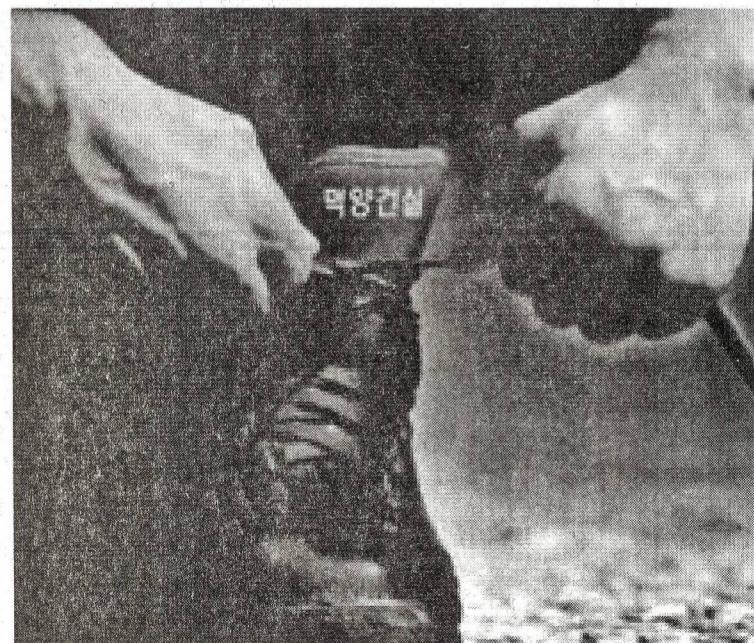
원정대성사 함께하는 반야심경

제1화 글/그림: 정수일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 고객을 제일로 삼겠습니다
- 전통기술과 신기술을 함께하여
-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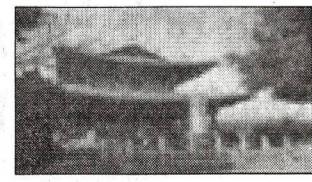
• 고객제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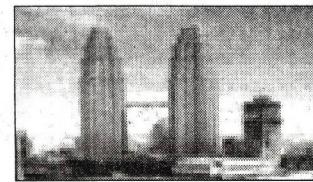
• 환경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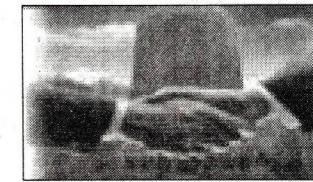
• 전통한식기술



• 앞선 신기술



• 인정받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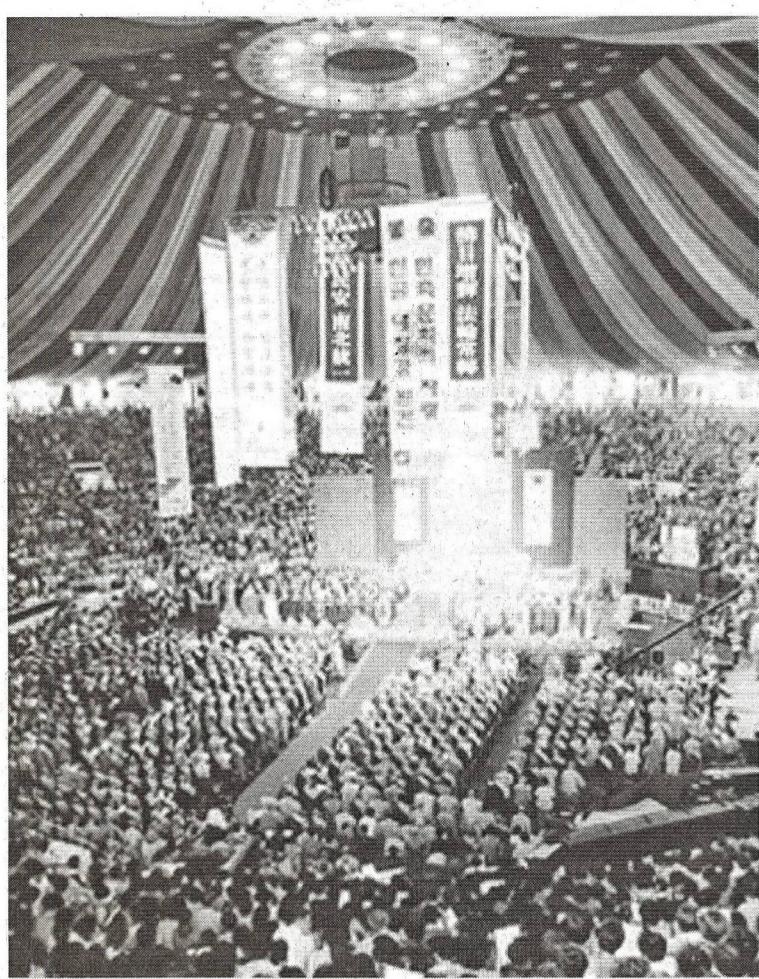


● 德陽建設株式會社

대표이사 李相斗

한글대장경 회향법회 봉행

팔만대장경, 318권 한글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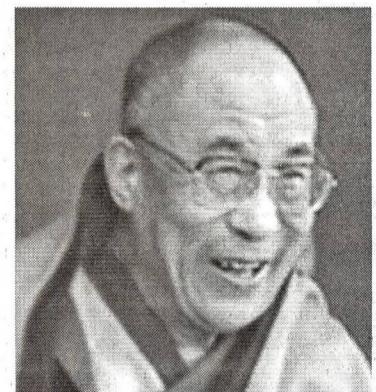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봉행
지난 9월 5일 오후 1시30분 장충
체육관 특설법회장에서 한글대장경
318권 완간을 축하하는 회향법회가
대한불교 조계종과 동국대학교 주
최로 거행됐다.

이날 법회는 1964년 7월 21일 동
국역경원 개원이래 37년 만에 3백 18
권을 모두 완간하는 성과를 거둔 것
이어서 교계 안팎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법회에는 불교 총지종 해암 통리
원장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법전
스님, 직지사 조실 관음스님 등 원
로스님과 정·관계인사를 비롯해

달라이라마 부시대통령에게 서한 전달

폭력은 폭력의 순환만을 증가시킬 뿐



전세계를 경악시킨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뉴욕 세계 무역센터
테러사건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9월
12일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위로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달라이라마는 “큰
재앙을 불러온 테러로 인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티벳인
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의 마음
을 전하며, 긴 고통의 시간동안 미
국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우리 모두가

“그 첫 단계로써 한글대장경보급과
전신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
조했다.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
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여러 어른들
의 원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

었다”며 종단과 정부, 후원회원 등
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회향법회가 끝난 뒤에는 김성녀
씨의 사회로 국립국악원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불교연합합창단 등이
축하공연을 벌였다.

美 테러에 대한 불교 26개 종단 성명 발표

종교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행동

지난 9월 11일 발생한 미국 테러
사태에 대해 조계종을 비롯한 26개
종단으로 구성된 (사)한국불교종단
협의회(회장 정대스님)가 긴급성명
을 발표하고 미국 국민들께 깊은 애
도를 표명했다.

12일 발표된 성명서는 “무차별 공
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이번
테러행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
대한 천인공노할 도전 행위이며 용
서받지 못할 범죄이며, 생명을 살상
하고 고통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
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며,
종교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행동”
이라며 “한국의 이천만 불자들을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상상치 못했
던 어려움이라도 혼란을 수습하고
힘을 모아 이겨내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미국 사태에 대한 한국 불교의 입장

먼저 크나큰 충격에 휩싸여 슬픔
과 고통을 받으신 미국 국민 여러분
께 한국의 이천만 불자들을 대표하
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무차별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이번 테러행위는 평화를 사
랑하는 인류에 대한 천인공노할 도
전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 국민들에
게 우방인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 행위이며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생명을 살상하고 고통하는 행
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악행이며, 종교적으로도 구원
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사상 최초의 국가재난으로 공포와
분노에 처해있는 미국 국민들께서는
침착한 마음을 되찾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라도 혼란을 수습하고 힘을 모아
이겨내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 국민들에
게 우방인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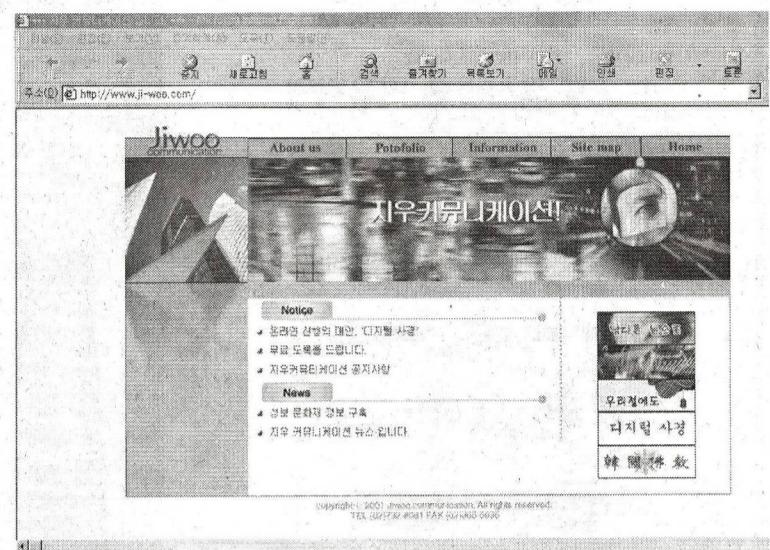
디지털 사경법회 사이트 이수트라(Esutra)

인터넷으로 ‘사경 법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

(주)지우는 이수트라 개설의 의미
를 인터넷 시대에 맞는 온라인 수행
방향의 제시와 ‘한글 대장경 보급’
및 불자들의 경전의 이해를 돋기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최대 318개 사
찰 및 개인 불자와 접수를 받아 디
지털 사경법회를 열며 참여 사찰에
는 한글대장경 1집(318권)과 특수
제작된 책장을 기증하고 이를 통해
등록된 ‘한글 대장경’은 역경원과
협의하여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개 예정이
라고 말했다.

이수트라는 1단계 사경, 2단계 교
정, 3단계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사경이 끝난 후 모든 불자의 교
정을 거쳐 공개되며, 공개와 함께
전문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한글대장
경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경전을 접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향후 1
~2년 안에 ‘듣는 한글 대장경’도
계획하고 있다.



드레와 떠나는 이달의 문화기행

▶ 북한산성 문화유적 답사

날짜 : 2001. 10. 7(일) 09:00

출발 : 구파발역내 1번 출구 매표소 앞(지하철 3호선)

답사지 : 서암사지 · 대서

문 · 중성문 · 중흥사지 · 태고

사 · 등장대 · 대동문 등

준비물 : 등산차림 · 도시

락 · 식수 · 필기도구 준비

▶ 가을빛으로 물드는, 승봉
도를 찾아서

날짜 : 2001. 10. 13(토) 14:30-10.14(일) 19:00(1박2일)

집합 : 동인천역 출구 바깥
오후 2시 30분(지하철 1호선
인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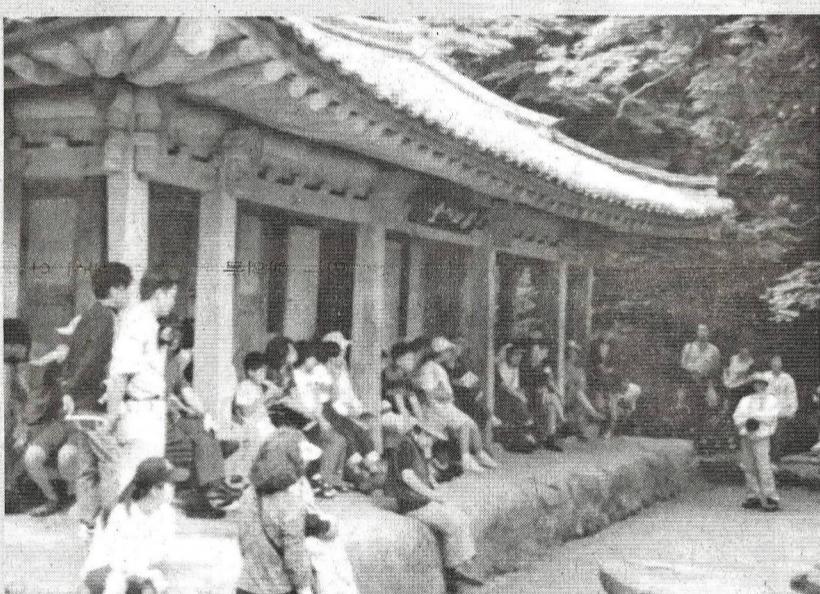
주제 : 바닷가 · 조계집이 ·
계집이 · 가을꽃과 백사장 등
준비물 : 호미 · 갈루리 · 채
집통 · 세면도구 등

▶ 백범영 화백과 돌아보는 인사동 가을 나들이

날짜 : 2001. 10. 21(일) 10:00

출발 : 호암갤러리 정문 앞(지하철 1 · 2호선 시청역 바깥)

답사지 : 호암갤러리(분청사기 명품전 II-한국미의 원형을 찾아서) ·
인사동 갤러리 순례



▶ 이천 도자기 축제를 찾아서

날짜 : 2001. 10. 25(목) 09:20

출발 :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깥 50m 지
점)

참고 : 생활 도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단풍 속에 묻힌 가을 산사를 찾아서

날짜 : 2001. 10. 28(일) 07:00

출발 : 서초구청 정문앞(지
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
깥 50m 지점)

답사지 : 내장사 · 천곡사지
등

▶ 기차타고 떠나는 늦가을 억새밭 기행

날짜 : 2001. 11. 4(일) 07:30
- 21:20

출발 : 청량리 기차역 2층
대합실(지하철 1호선 바깥)

답사지 : 강원도 정선 민동산
참조 : 왕복 기차이용 · 등산
차림 · 식수준비 · 왕복 3시간 산

행 · 험한 코스는 없습니다.

참가문의 : 전화(712-5812.3) 예약 후 온라인으로 입금

<http://www.ngodoore.com>

e-mail : doore@ngodoo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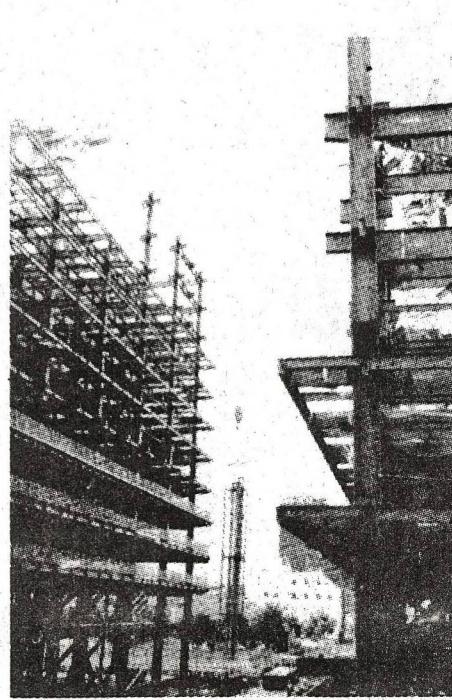
옥천건설주식회사

건물의 심장과 같은 설비 공사를 옥천에 맡겨주세요!

25년 장인의 정신으로 성실히 시공하겠습니다.



• COEX FLOWER 공법시공 경험
• PFP 공법 시공 경험
• 25년의 설비시공 Knowhow



주요사업

- APT 기계설비공사
- 오피스텔 기계설비공사
- 아파트형 공장 기계설비공사
- 병원 기계설비공사
- 숙박시설 · 사우나 기계설비공사
- 수영장 기계설비공사
- 사찰 설비공사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시절...



총지종이 창종된지
어언 30년. 짧지 않았던
세월 속에 잊혀졌던
그때 그시절을 떠올리며
주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종당시와 어려웠던
초창기 교화일선에 계셨던
스승님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살펴봅니다.
지나간 주억 속에서
또다른 활기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집자주〉



▲1978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총지사 서원당에서 제11회 강공회를 개최하였다. 원정종조님께서 (불교총전) 중 화합과 평등, 융화 편을 강설하고 승단의 단합을 강조하였으며, 6화경(六和敬)과 6합상(六合相)을 해설하고 계시다.



▲1974년 10월 3일, 경주학생회 결성식을 경주선교부(현 국광사)에서 거행하고 회기를 수여함과 동시에 원정 대성사로부터 회기수여식을 거행하고 있다.



▲1973년 신정회 청립 후 창궁궁 비원 앞에서 기념 촬영 장면이다. 원정 대성사 오른쪽으로 이희춘(신정회 초대 서울 지회장) 각자와 환당 대정사, 심인행 전수(왼쪽 아래부터), 법장화 전수, 복지화 전수의 모습이 보인다.



◀1978년 4월 19일 중앙종회와 재단이사회 협동회의 통리원(현 총지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성도절(현 교절)을 양력 12월 24일에 행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시말인 [성도합시다], [성도하십시오] 등 성도를 권장하고 맹세하는 인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정각원 전수, 대자행 전수, 법장화 전수, 묘행정 전수이다.



▲1977년 10월 29일 총지서원당을 이전, 현 정각사 위치에 사원을 신축하고 현공불사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동시에 정각사로 개칭하였다. 뒤로 총지종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가 보인다.



▶1978년 8월 30일 부산 정각사에서 삼매야 계단을 개단하고 결연관정수계식을 봉행했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온 교도 110명에게 삼매야계를 수계하고, 결연관정을 봉행했다. 수계 대상 교도는 교도회간부, 법장로, 전교 등이었다. 이날 관정불사에서 교도들은 수계증을 수여하고 입사선서문을 낭독했다. 관정수계식에서 계단이사리는 전계아사리에 원정 대종사, 교수아사리에 특정 대종사께서 맡았다. 사진은 결연관정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다.



▲1978년 5월 14일 포항 수인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